



광주전자공고 출신 배구 차세대 거포 김요한

프로행 '가시밭길'

광주전자공고 출신인 남자배구 '차세대 거포' 김요한(22·인하대 졸업 예정·사진)이 프로 진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구단과 선수 간 합계투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1라운드 선수는 계약금없이 연봉만 7천만~1억원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2m 장신으로 화려한 스파이크 실력에 연연인 못지 않은 외모를 겸비한 '얼짱 거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약조건이다.

올해 월드컵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던 김요한은 3일 입국 직후 아버지 김종인씨와 함께 광주 고향 집으로 내려간 뒤 신인 드래프트 때 자신을 전체 1순위로 지명했던 LIG손해보험의 협상 요구에 이를째 응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씨는 5일 전화통화에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설사 LIG손해보험이 지명권이 있더라도 요한이

은 의모를 겸비한 '얼짱 거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약조건이다.

하지만 LIG손해보험의 입장은 강경하다.

기존 틀을 깨면서까지 규정에 없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병현 LIG손해보험 단장은 "삼상화재에 지명을 받은 유광우처럼 일단 팀에 들어오고 정해진 틀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합류 후협상'을 주장하면서도 "이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 줬다.

김요한 측도 LIG손해보험과 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종인씨는 "아들을 외국에 보내기 보다 곁에 두고 배구를 시키고 싶은 게 부모들의 심정이다. 누가 언론의 불매를 맞았으며 해외에 진출시키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지금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깨려면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LIG손해보험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LIG와 몸값 놓고 '힘겨루기'

선수측 "선수 매도...입단 거부"

구단측 "선합류 후협상" 주장

를 '돈만 아는 선수'로 매도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일본 진출이 좌절되면 1년을 쉬게 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입국과정에서 김병현 LIG손해보험 사무국장과의 만났던 김요한 측이 '수익원의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입단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이다.

김요한 측은 '불합리한 회생'을 강요하는 현재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평가에 상응하는 몸값을 받겠다는



"밀지마" 5일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제18회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한국의 문필희(가운데)가 독일의 수비진을 뚫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26-32로 패했다. /연합뉴스

KBO 파산 위기

현대구단에 130억원 지원

매각 안되면 전액 날릴판

출범 26년째인 한국프로야구가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

올초부터 불거진 현대 유니콘스 매각방안이 1년째 켈바퀴를 돌면서 한국야구 위원회(KBO)마저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 KBO가 현대에 직접 지원한 돈과 농협이 대출 보증 액수를 합치면 무려 130억원이다. 프로야구 출범이후 26년간 꼬박 모았던 KBO 기금 140억원을 사실상 몽땅 쏟아부은 셈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현대에 투자할 돈도 없고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 매각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올 봄 농협과 협상이 무산된 데 이어 지난달 STX와도 실패한 KBO

는 "현재 몇몇 기업과 접촉중"이라며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인수 기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KBO의 이같은 발표를 지켜보는 야구관계자들과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었다. 혹사나 하는 마음에 믿어보려 하지만 이미 KBO가 두 차례나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기에 역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래된 대다수 야구인들은 신상우 총재를 비롯한 KBO 집행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KBO 공언대로 현대 야구단이 12월 중에 매각된다면 프로야구는 뒤늦게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

하지만 KBO의 무능으로 또 다시 실패한다면 프로야구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

게 된다.

현대야구단이 결국 공중분해 된다면 2008년 프로야구는 18년만에 7개 구단으로 축소된다.

이상일 KBO 운영본부장은 "만약 12월 중에 현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KBO는 더 끌고 갈 힘이 없다. 내년은 7개 구단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구단이 7개 팀으로 축소되는 것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의미한다.

KBO 기금 140억원을 한꺼번에 날리는 것은 물론 내년 중계권료와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비롯해 구단들의 각종 마케팅 전략도 치명상을 입게된다. 또한 7개팀이 되면 경기 수가 108게임 정도로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해 관중수 폭락도 불가피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재주·김동주 등 12명 이달 '웨딩마치'

정규리그 일정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왔던 프로야구 선수 12명이 12월에 잇따라 웨딩마치를 올린다.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한 이재주(전 KIA·34)는 15일 오후 1시 30분 신양파크호텔에서 4살 연하의 김나연(30)씨와 결혼한

다. 올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나연씨는 광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뛰어난 미모를 갖춘 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주에 이어 김동주(전 두산)는 16일, 두산 투수 정성훈은 22일에 텔레이로 결혼식을 올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목포로 이사

25년 전남체육회관 생활 접어

전남도체육회가 남악신도시 인근인 목포시로 이전,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전남도체육회는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남도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목포 하당지구 정인빌딩으로 이전한다.

이에따라 도체육회는 지난 1982년 12월 입주이후 25년동안의 광주시 구동 '전남체육회관' 시대를 접고 '제2의 도

약을 준비하게 됐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새로운 체육회관을 건립하지 않은채 개인소유의 협소한 빌딩 2층을 임대해왔던 단순히 체육회 사무실만 이전해, 좁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내년 체전준비에 대한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내년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을 새로 건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임대건물로 사무실만 옮긴다는 것은 전남도가 체육회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Includes hospital lists for various specialties like Internal Medicine, Surgery, Pediatrics, etc.

여자 프로골프 '세계대전' 렉서스컵 내일 개막

'연속 패배는 없다' 세계 최강 한국여자프로골프 자매들이 교라쿠컵 한일국제대항전의 빠른 패배를 뒤로 하고 7일부터 사흘간 세계연합팀과 호주에서 맞붙는다.

2일 끝난 일본과 국가대항전에서 연장전 끝에 패한 한국팀은 주축 멤버의 큰 변화없이 호주 퍼스의 바인스리조트골프장(파72·6천634야드)으로 날아가 안니나 소렌스탐(스웨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이 포진한 세계연합팀과 대결한다.

올해 세번째를 맞는 렉서스컵은 한국·대만·일본 선수들로 꾸러진 아시아팀과 유럽, 미국, 호주 선수들로 구성된 세계연합팀 12명씩이 출전해 벌이는 대회다.

박세리 등 태극남자 9명 포대포 소렌스탐 세계연합과 열전 3일

첫날인 7일은 포섬, 8일은 포볼, 9일은 1대 1 매치플레이로 승패를 가린다.

아시아팀 12명 가운데 박세리(30·CJ), 장정(27·기업은행), 이선화(21·CJ), 이지영(22·하이마트), 신지애(19·하이마트), 안시현(23), 이정연(28), 김인경(19), 이미나(26·KTF) 등 9명이 한국 선수다.

김인경과 이미나를 제외하고 신지애 등 나머지 선수들은 일본과 대결에서 빠이른 패배를 경험했다.

특히 을 시즌 국내 무대에서 9승을 올리며 '지존'이라는 칭호를 얻은 신지애의 각오가 남다르다.

신지애가 대회 초반에 부진한 징크스를 깰 수 있는지가 이번 대회 성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6일(목)
▲07/08 이탈리아 세리에A 축구(인터빌란: 라치오)(05:30-KBS N SPORT)
▲07/08 NBA(LA레이커스: 덴버)(11:00-SBS스포츠)
▲2007 농구대잔치 준결승1(13:30-SBS스포츠)준결승2(14:50-SBS스포츠)
▲동양태평양 여성북서협회 페더급 타이틀매치(김지연: 황원시)(14:00-KBS N SPORT)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삼성생명)(16:50-SBS스포츠)
▲07/08 SK텔레콤 프로농구(LG: 삼성)(18:50-XPORt-SBS스포츠)
▲NH농협 07/08 V리그(현대캐피탈: 상무)(19:00-KBS N SPORT)